

gil

good in life



HEALTH



HAPPINESS



DUMC

길

Theme

woman



외롭고 고될 때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통 어둠뿐인 순간에 내 안에서 또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나.

그것이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중에서
지은이_성전 | 출판사_마음의 숲

발행인 채석래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3년 6월 1일 (통권 35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7000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gil

CONTENTS

2023
summer
vol.35



HEALTH

04 Intro
2220일, 건강할 권리

06 Good Doctor
여성 뼈 건강의 수호자,
골다공증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10 Zoom in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12 Medical Theme 1
자궁경부암의 예방

14 Medical Theme 2
유방절제술 환자, 삶의 질

16 Medical Theme 3
여성이 남성보다
갑상선암 5배 많아

18 Korean Medicine 1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
그냥 두면
'사회적 암(癌)'이 될 수도

20 Korean Medicine 2
한방산후조리로
건강한 몸을 되찾으세요!



HAPPINESS

22 Memoirs
간호사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26 Essay
비가 오는 날은
세상이 따뜻하다

28 Travel
하늘에 매달린
다리를 건너 만나는 도시
스페인 론다

32 Book
불교 기도문



DUMC

34 Focus 1
지역의료의 중심,
함께하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36 Focus 2
상월결사 인도순례
붓다의 길에서 함께 피운
43일간의 약사전 불사

40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스페인 론다

44 Together
나눔

48 Schedule
진료 일정 안내

PART 1
HEALTH

Medical Theme

여성

2220일, 건강할 권리

여성 뼈 건강의 수호자,
골다공증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자궁경부암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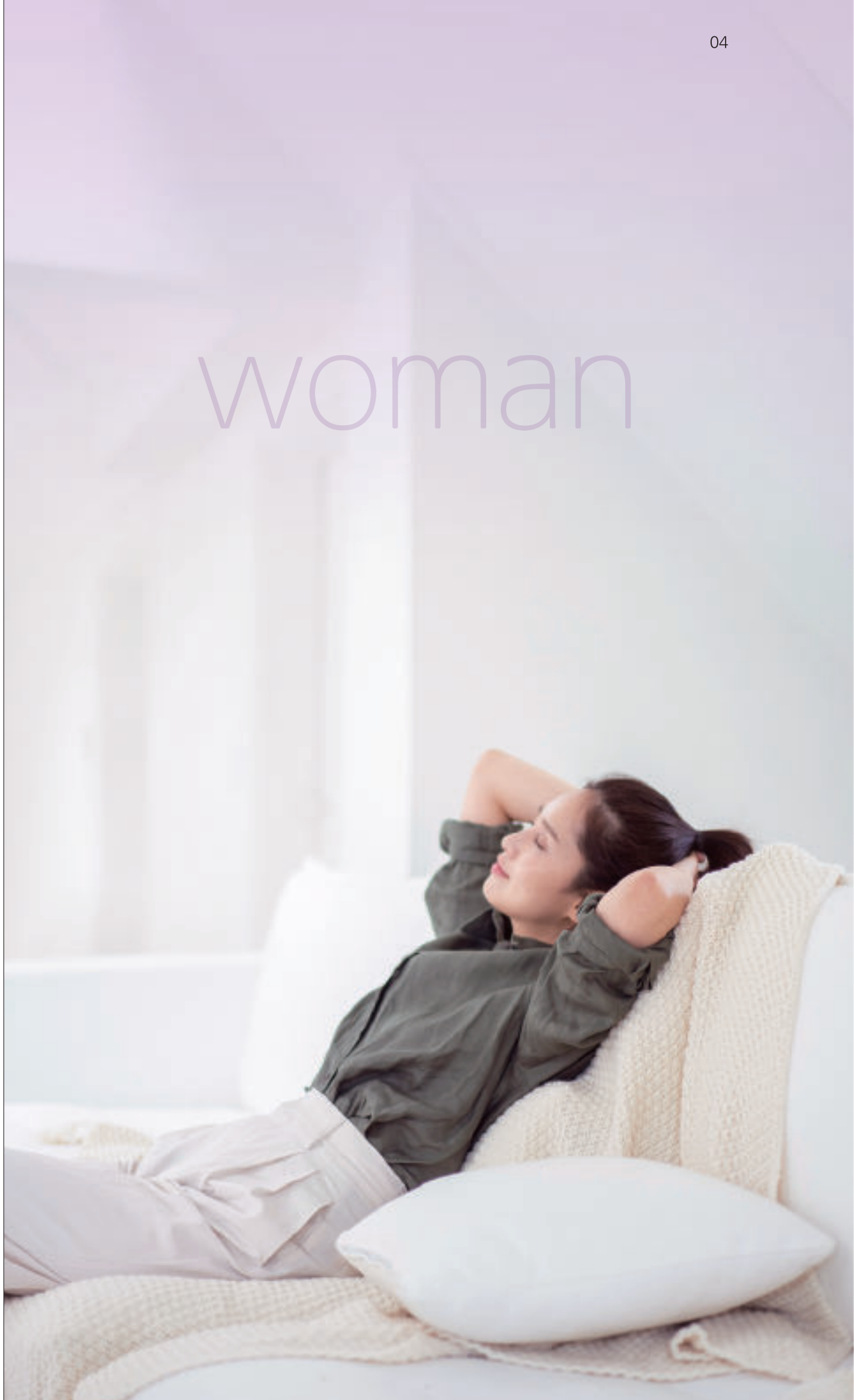
유방절제술 환자, 삶의 질

여성이 남성보다
감상선암 5배 많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
그냥 두면
'사회적 암(癌)'이 될 수도

한방산후조리로
건강한 몸을 되찾으세요!

woman



2220일 건강할 권리

우리나라는 2018년에서야 처음으로 광고에서 생리를 생리라고 불렀습니다. 광고에서 생리혈이 파란 액체에서 붉은 액체로 바뀐 건 그 이듬해고요. 생리를 생리라고 부르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현실이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리할 권리(월경권)란 요원할 수밖에요. 환경은 어떤가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내, 중2병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매달 고통스럽고 불쾌감을 주던 생리전증후군, 생리통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이란 한참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지요. 초경부터 완경까지, 생리는 여성의 일상을 옥죄는 족쇄이기만 할까요.

생리는 여성의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생리주기, 생리량, 생리혈의 색과 형태를 잘 살피고 그를 통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무심하지도 숨기지도 말아야지요. 불안하고 부담스런 '손님'으로 대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성의 2220일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해지도록, 오워바 의원의 파격적인 출근길을 이역만리에서 응원합니다.

흰색 정장바지에 붉은 자국.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의회에 나타난 여성 상원의원 글로리아 오워바의 출근길 모습이 화제가 됐지요. 당황스런 이 상황에 대해 오워바는 “월경(생리) 얼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일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오워바 의원은 ‘월경권 보장’ 법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치가지요.

여성은 보통 한 달에 5일간 생리를 합니다. 열세 살 때 초경을 시작해 쉰 살에 완경한다고 치면 37년, 2220일 동안 생리를 하는 셈이지요. 인생의 6년 이상이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그날’을 들키는 일은 드물지요. 조심스럽게 몸가짐과 뒤통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늘 그날을 보내니까요.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전 반갑지만은 않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손님이란 뜻으로 이해했지요. 딸, 손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설명해주시던 두 분의 목소리와 눈빛에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으니까요.



여성 뼈 건강의 수호자

골다공증,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최근 1년간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94%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호르몬과 골다공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질병 중 하나인 골다공증 진단 치료의 전문가이다.

21년에는 논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새로운 치료전략-비타민D 상태 추이조사'를 발표하기도 했고, 2020년 대한내분비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자이기도 한 최 교수를 만나 여성 골다공증의 문제점과 관리방법에 대해 들어 본다.

고령화 사회의 복병,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고령화, 노화와 관련 깊은 질환이기 때문이다. 60대에 들어선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질환자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점은 실제 관련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17년 91만여 명에서 2021년 113만여 명으로 25% 가량 증가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해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 외에도 뇌경색, 뇌출혈, 치매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환자가 방심하기 쉽다는 함정이 있다. 말하자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갑자기 악화시키는 복병인 것이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폐경 이후 심해지는 여성의 골밀도 소실

최 교수는 골다공증을 “골밀도 감소로 뼈가 약화돼 부러질(골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말한다. 특히,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다.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뼈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파괴되고 재형성된다. 골다공증은 뼈의 성장이 멈춘 이후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일종의 노화현상인 셈이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폐경 이후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뼈를 만들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 오면 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고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허약해지고 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콜록’했을 뿐인데 뚝

골다공증은 초기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지만, 그 증상은 있다고 한다.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척추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후만 변형되거나 압박되어 신장이 줄어들어 오는 것이다. 심한 경우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서 외상이 없더라도 척추의 앞부분이 일그러지게 된다.”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이 높이에, 심할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50~70세 여성의 골절은 주로 손목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70대 환자들의 경우 고관절 및 척추의 골절이 흔하게 발생한다.

치료 제일 목표는 골절방지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골밀도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티 수치(T-scores)가 판단기준이다. X-ray 검사를 진행하여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치료과정에 들어가는데 치료의 목적은 부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을 20%까지 본다.”는 최교수는 “골절은 폐렴, 욕창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하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골다공증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다.”며 골다공증 관리와 골절예방의 중요성을 강조

최 교수는 “여성에서 골밀도(또는 질량)는 뼈가 가장 튼튼한 때인 대략 30세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평균 약 51세 경에 발생하는 폐경 후 가속화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폐경 후 3~5년 동안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한다. 골밀도 손실은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신체가 적절한 양의 뼈 형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뼈가 지속적으로 밀도를 상실하여 점차적으로



했다. 특히, 한번 골절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재골절을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비타민 D, 칼슘 섭취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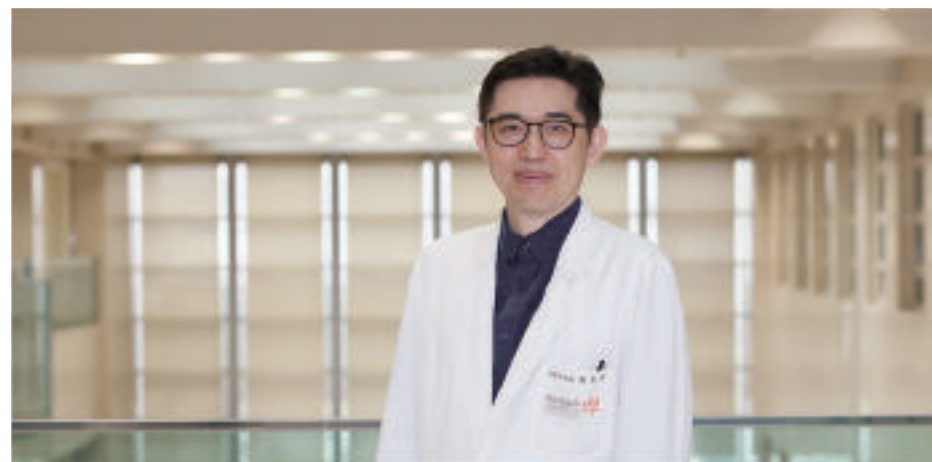
뼈를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각종 영양소와 꾸준한 운동이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한 양만큼 잘 섭취할 필요가 있다.

최 교수는 “비타민 D 결핍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 실내생활을 하기 때문인데 음식에도

별로 없으므로 따로 보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칼슘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한국인에게 많이 부족하다. 유당불내증이 많아 우유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양학회의 국민영양소 섭취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하루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인 800~1000mg에 훨씬 못미치는 500mg에도 못 미친다. 칼슘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액석회화의 우려가 있어서다. 최 교수는 우유, 치즈, 멸치, 방어포, 요구르트 등에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당뇨, 혈압처럼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죽을 때까지 평생 관리하며 가는 질병인 셈이다. 그래서 최한석 교수에게는 ‘오래된’ 환자가 많다. 10년 넘게 치료를 받는 환자, 100세 넘은 환자,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는 환자, 어머니가 치료받다가 세월이 흘러 딸이 함께 손잡고 오기도 한다. 차분한 성격답게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조분조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의사라 믿고 찾는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 한 석** 교수

전문진료분야
갑상선, 당뇨,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골다공증클리닉

경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박사
· 신촌세브란스병원 전공의
· 신촌세브란스병원 전임의
·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조교수
· 미국 연수 UC San Francisco USA. Visiting Scholar

통계
정보

woman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cancer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하는 암, 다른 병은 몰라도 제발 암만은 피하고 싶은 병으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을 보면, 65세 이상에서의 암 발생률은 10만 명 당 1483.6명에 달하여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암 발생의 특성과 최근의 전체 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암 발생 증가가 최근 암 발생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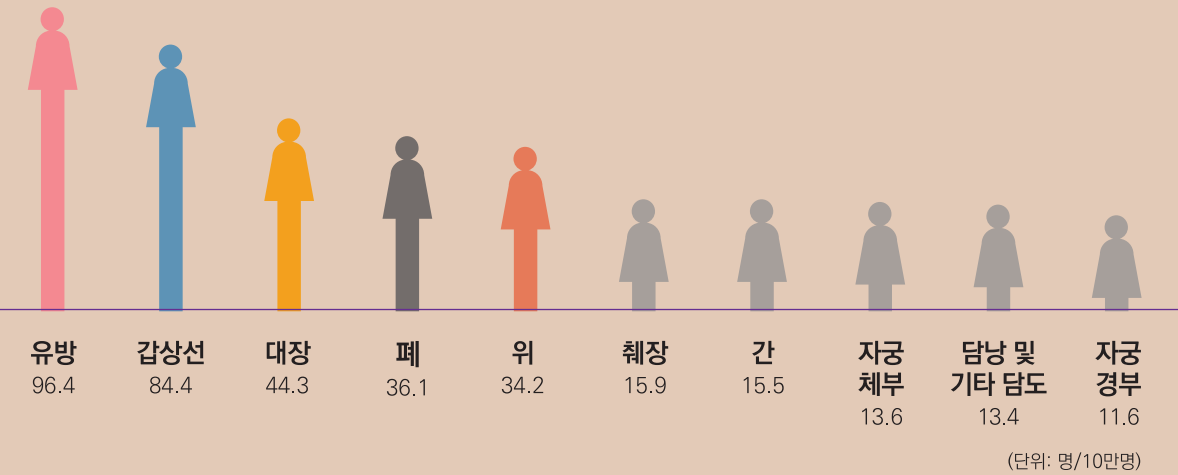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0대 초반까지는 여자의 암 발생률이 더 높다가 후반부터 남자의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암 연령군별 발생률 (조발생률, 단위: 명/10만 명)

성별	0~14세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남녀전체	15.1	77.6	478.5	1,483.6
남자	15.6	50.2	425.2	2,120.0
여자	14.6	107.6	532.7	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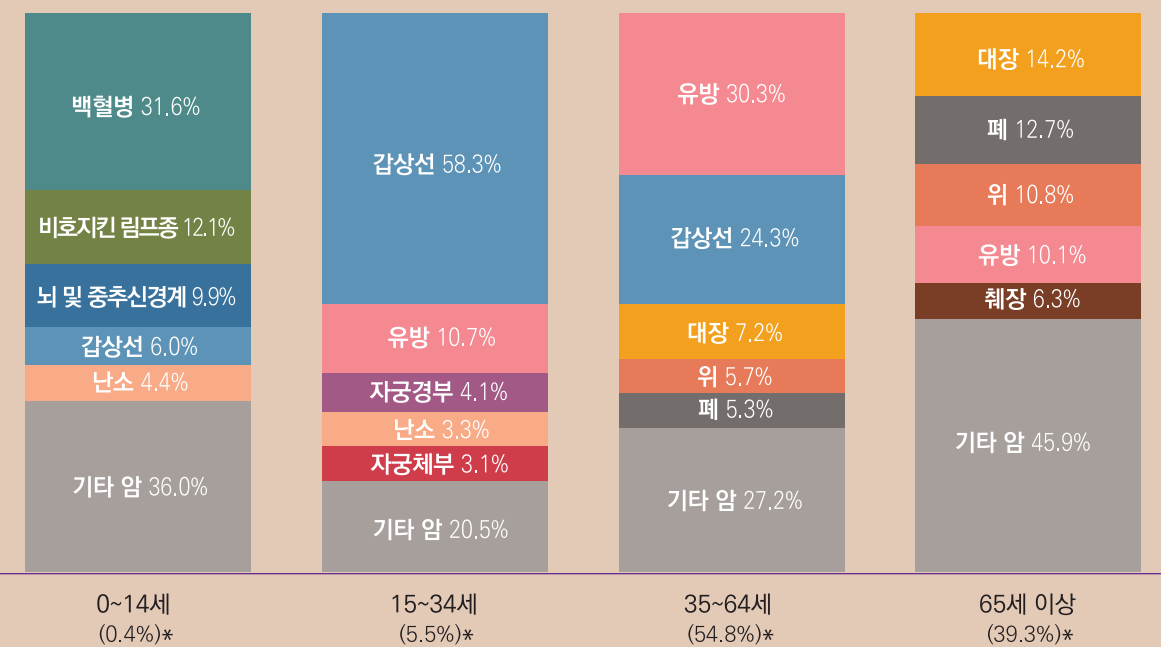
여성 » 많이 발생하는 암 (2020년 기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이었으며, 이어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 암종의 연령별 발생률 (2020년 기준)

여성에게 발생하는 주요 암종의 연령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0~14세에서 백혈병, 15~34세에서 갑상선암이 높게 나타났으며, 35~64세에서는 유방암이, 65세 이상에서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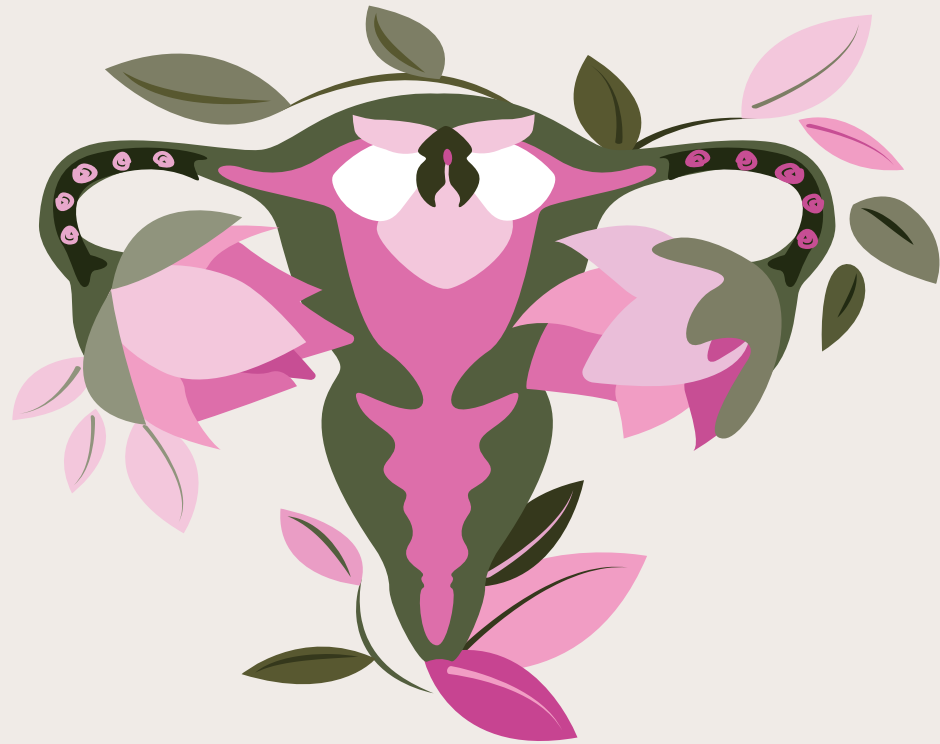
* 전체 암 발생자 중 연령별 암 환자수 비율

여성 » 많이 발생하는 암 » 자궁경부암

1

자궁경부암의 예방

자궁경부암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 암 중 가장 흔한 암이었으나,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 백신의 도입으로 그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2.7%(3,273명, 2019년 중앙암 등록 통계)를 차지하며, 10번째로 흔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이채형 교수

전문진료분야

부인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용모막암), 복강경 수술(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종양, 자궁외임신), 자궁질탈출증, 로봇수술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HPV 지속 감염이 암의 발생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자궁경부 상피내종양(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불리는 전암 단계가 존재하며, 이 전암 단계가 7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전암 단계에서의 진단, 또는 암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해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선별검사로 는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세포검사와 고위험 HPV 검사가 있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대상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이다. 자궁경부암 세포검사가 국가암 검진에 포함돼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세 번 이상의 연속된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70세에 선별검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최근 20년간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병력이 있는 여성이거나 혹은 세포 검사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선별검사를 지속한다. 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여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중등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이상의 병력이 있거나, 과거 선별검사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지속한다. 20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매우 높은 HPV 감염율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자연 치유율, 또한 자궁경부 침윤암의 매우 낮은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선별검사가 권장되지 않으나 자궁경부암 및 전암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검사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적어도 5일 이상 지나서 (또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10~20일 사이) 검사받는 것이 좋고, 검사 전 2~3일 동안에는 성교, 질 세척, 탐폰, 질정 사용을 피한다.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대상을 25세에서 65세로 권장하며, 5년마다 HPV 검사를 최우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세포검사와 HPV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 5년 간격, 세포검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주기를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생 빈도, 선별검사를 위한 접근성의 용이함,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별검사 수가를 고려할 때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에서 매 1년 간격으로 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 HPV 검사는 25세 이상 성인 여성에서 세포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

할 수 있으며, 선별검사의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권고된다.

HP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HPV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HPV 백신은 2가(서바릭스), 4가(가다실), 9가(가다실9) 백신 세 종류가 있으며, 각 백신은 표적으로 삼는 바이러스의 수가 다르다. 이들은 자궁경부암의 약 70%와 다른 HPV 관련 종양(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음경암)의 원인이 되는 HPV 16, 18형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4가 백신은 생식기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HPV 6, 11형 감염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9가 백신은 이 네 가지 HPV 유형과 함께 추가로 다섯 개 유형의 HPV (31, 33, 45, 52, 58형)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HPV 백신은 성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9~45세 모든 여성에게 접종이 권고되며, 첫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상적인 접종 연령은 9~26세이며, 27~45세 여성에서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기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연령과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백신을 접종해도 암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여성 » 많이 발생하는 암 » 유방암

2

유방절제술 환자, 삶의 질

유방이라는 장기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유방절제술에 의한 유방 결손 그 자체는 삶의 방식이나 수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유방은 깊고 복잡한 인간의 상징성과 가치를 가진다. 여성 상징이자 어머니의 가치, 비너스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또한 다산의 가치를 지닌다. 수유 없이 자란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여성의 유방은 태초 인류의 기원이며, 문명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유방암은 모든 여성암 암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는 어떤 방식이든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의 유방은 가장 흔한 장기 결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유방절제술 후 여성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수년 간 지속되어 열등감, 우울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위궤양 등 신체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의료적 및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의료적 접근

수술 후유증

유방절제술은 대흉근, 소흉근 그리고 액와 임파절 절제술을 시행하므로 상지의 운동 및 활동 장애가 발생하며, 광범위 액와 임파절 절제시 부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운동범위를 확장하고, 부종에 대해서는 약물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특효약은 없으며 부종부위 거상과 물리적 압박이 필요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

보통 심각하지 않으며 치료 중이나 치료 후 수 주간 방사부위에 햇빛 차단과 보습제 도포가 필요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혈액종양내과

신현춘 교수

전문진료분야

위암, 폐암,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빈혈,
항암치료 및 보존적 치료 전문

호르몬 치료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항에스트로젠 호르몬 투여는 필수이며, 이는 여성호르몬의 결핍을 야기하여 여성 질의 수분저하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10년 간 장기 치료하므로 이에 대한 불편함과 고통 감수는 쉽지 않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 비타민 D 복용이 필요하며, 또한 햇볕에 의한 비타민 D 체내 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접근

유방은 장기의 기능을 떠나 여성 자체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실은 정체성 상실이며, 이에 대한 심리적 수용은 매우 어렵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단절, 사회적으로는 심리적 위축감, 왜소함, 그리고 자존감 결여는 직장 등 공동체에서 관계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이에 가장 중요한 대처방법 첫째는 자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온

함과 자존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일상 생활의 작은 행복을 자주 맛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맛있는 음식(뚜렷한 금기 음식은 없다) 먹기, 운동과 취미활동 그리고 적절한 단체 생활의 즐거움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가정과 근접거리 친지와 동료들은 환자라는 특별한 동정심에서 벗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이전과 같이 단절 없고 지속적인 환경을 보존 해주며, 유방결손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이 자신의 소중함을 절대 훼손하지 않음을 자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성 » 많이 발생하는 암 » 갑상선암

3

여성이 남성보다 갑상선암 5배 많아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서 비교적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병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 완치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기 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병 위험이 높은 여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목의 전면에 위치하며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 및 분비하는 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더워지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체중이 빠지게 된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량이 크게 떨어져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고 몸이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해질 뿐 아니라 추위를 못 참는다. 또한 식욕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다.

갑상선암의 종류와 원인

갑상선에 생기는 암은 크게 분화 갑상선암, 갑상선 수질암,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며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분화 갑상선암인 갑상선 유두암이다. 갑상선암은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많고, 일반적으로 30~5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이유도 분명하진 않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는 여러 유전적 요인과 방사선 노출 및 장기간 요오드가 결핍되거나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는 등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중 방사선 노출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의 증상과 진단

갑상선암은 대부분 종양이 아주 커지지 않는 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증상이 없지만 작은 크기의 암이라도 성대신경 근처에 종양이 위치할 경우 목소리가 변하거나 사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암이 진행되면 전경부에 돌출된 종물이 만져질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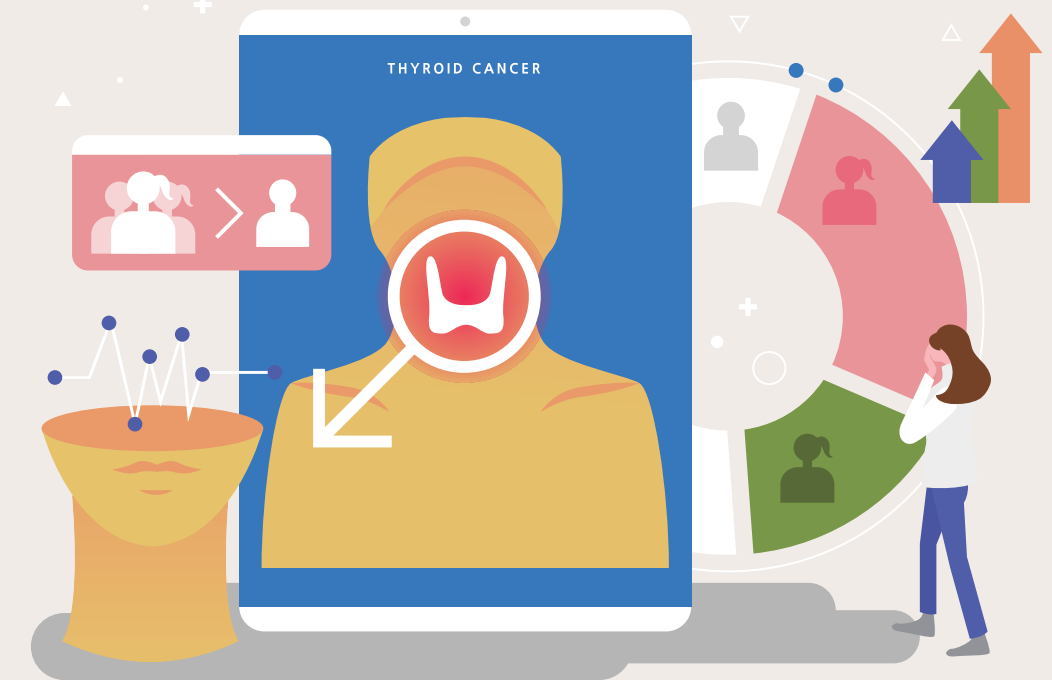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반은정 교수

전문진료분야

내분비외과,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경부질환,
최소절개수술,
내시경 및 로봇 수술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면 호흡곤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여성은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갑상선 검사를 같이 하면서 갑상선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병력청취 및 신체검진, 혈액검사, 갑상선 초음파, 미세침흡인세포 검사 등을 통해 갑상선암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미세침흡인세포검사는 가는 주사바늘을 갑상선 결절에 꽂아 결절 세포를 얻은 후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로, 진단율은 약 85~95%이다. 이 검사에서 악성이 아니더라도 초음파 소견이나 다른 검사에서 악성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해서 다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갑상선암의 치료

갑상선암의 치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목에는 기관지, 식도, 주요 동맥, 정맥, 신경 등 중요한 조직들이 분포돼 있어 이러한 기관이 손상을 받거나 암이 그곳까지 침범했다면 심각한 합병

증이 유발될 수 있다. 갑상선암은 다행히도 대부분이 분화도가 좋으며, 적절한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및 호르몬 치료로 완치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수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의 범위나 종류는 갑상선암의 조직학적 종류, 크기, 위치, 주변 조직으로 침윤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한다.

갑상선암 수술로는 전통적인 절개법과 최근에는 수술 로봇을 이용하여 목 앞쪽의 수술 상처를 피하고 작은 상처를 통해 갑상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절개법은 목의 중앙 부분에 5~6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장점으로는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며, 경부 임파절 절제에 좋지만 단점으로는 목의 정중앙에 남는 5cm 이상의 수술 후 자국으로 인하여 미용상의 문제가 생겨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에 피부 당김, 감각의 저하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수술 로봇 장비를 이용하여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부위가 목 부위에서 보이지 않고, 기존 수술보다 통증이 적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 그냥 두면 ‘사회적 암(癌)’이 될 수도

소변을 참을 수 없거나 지나치게 자주 보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심한 고통이 될 수 있다.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빈번하게 화장실을 가거나 소변보려고 자주 깬다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숙면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다.

나아가 건강과 성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하여 ‘사회적 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은 잦은 배뇨를 유발하는 다른 질환 없이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한다. 중년 성인 6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며, 젊어서는 여성에게 더 많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늘어나서 75세 이상의 인구의 30~40%에 이를 정도로 흔하게 보고된다. 특히 여성들은 증상에 대한 수치심으로 숨기고 있거나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서 실제 과민성 방광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①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②갑작스럽게 소변을 참을 수 없게 되어 배뇨를 늦출 수 없는 느낌을 의미하는 ‘요절박(尿切迫) ③요로감염과 다른 뚜렷한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요절박과 동시에, 혹은 요절박이 느껴진 직후에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지리는 ‘절박요실금(切迫尿失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요실금이 진단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과민성 방광은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인 활동과 성생활 등 여러 방면에 악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빈뇨, 절박뇨, 절박요실금, 야간뇨 등의 증상으로 인해 만성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까지 보고된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관련 증상을 가지는 응답자의 36%가 자신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수분 섭취량과 외출을 줄이거나(각각 35%와 15% 감소),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과 화장실 위치를 미리 신경 쓰는 정도가 늘어나는 것(33% 증가)과 같은 행동 변화들이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2회 이상 깨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인 ‘야간뇨’는 과민성 방광이 있는 환자의 1/3 정도가 느끼는 불편이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수면의 질이 크게 손상되고, 서둘러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을 입고,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행동치료, 약물치료, 신경조절치료 및 수술치료 등이 있다. 일차적 치료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가 포함되며, 이들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콜린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약물요법이며, 50~70%의 호전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약물의 작용이 방광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구강건조와 갈증, 변비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민성 방광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약 치료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에서는 한약(팔미지황탕과 위약 비교)과 전침(2Hz 전침 및 16Hz 전침과 일반침 비교) 등을 적용한 2건의 과민성 방광 한의치료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근래에는 매선침을 이용한 임상시험 1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갱년기 및 폐경 여성의 과민성 방광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침과 전침치료는 안전하며, 특히 주간뇨 횡수, 하부요로증상 점수, 요실금 점수 등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침치료 후 1초에 2회 전기 자극을 부여하는 2Hz 전침은 야간뇨를 현저히 개선하여 심신의 피로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증상이 심하거나 노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한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침과 달리 한약은 노화를 억제하고 기력을 강화하여 비뇨기계와 신경계 및 내분비계의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팔미지황탕은 몸이 차거나 쇠약해진 여성 과민성 방광에 특히 뛰어났으며, 야간에 심하게 발생하는 빈뇨나 요절박에 효과적이었다.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치료와 병행하면서 방광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섭취량과 섭취 시간 조절), 카페인 섭취 제한, 변비 치료, 금연, 체중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배뇨가 이루어진 시각, 횡수, 배뇨량과 동반 증상 등을 기록하는 배뇨일기를 작성하면서 시행하는 방광훈련, 골반근육운동(Kegel exercise), 바이오피드백 등의 행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배뇨간격을 결정하고, 이를 지키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간격을 연장하여 소변을 보는 간격을 3~4시간까지 도달하게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과민성 방광은 환자, 특히 여성 환자의 삶의 질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암(cancer)으로 간주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학과
김동일 교수
(現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전문진료분야
건강증진, 불임, 갱년기장애, 지궁근증, 월경통, 골반통, 수족냉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신후풍, 피부미용 및 탈모

한방산후조리로 건강한 몸을 되찾으세요!

산후조리는 치료의 기간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여성만의 소중한 경험이다. 출산이 끝나고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산욕기’라고 하는데 보통 산후 약 6주~ 8주간이 해당된다. 이 기간에 적절한 산후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산모에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몸의 회복이 지연되기도 한다.

산모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많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출산 전과 유사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에는 산후조리 개념이 없는데 한국 여자들만 유난스럽다’며 산후조리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은 “한국의 산후조리문화는 여성의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여성들은 근육량이 적고 골반도 작은 인종적 특징이 있어서 서양 여성들과는 체격과 체력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출산 후 체력이 저하된 산모들이 체온조절이 어렵기도 해서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한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은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여성에 맞는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 여성에 특화된, 누적된 치료방법이 있으므로 한방 병원에서 치료받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에서는 한방산후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진료기록공유를 통해 출산 전후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모관리에 적용한다. 또한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산후풍 예방에 효과적인 온돌 입원실에서 따뜻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입원 전과 후에 산모의 건강을 꼼꼼히 확인하여 체질, 유즙분비, 부종, 산후풍 등 산모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약을 처방해 회복을 돕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산모들도 외래방문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산후붓기제거’ 프로그램은 3일분의 한방과립제와 물리치료 장비를 이용하여 초기 체중 증가와 신체 불편의 원인인 산후붓기(부종)를 치료한다.

산후 한방치료는 한약과 침, 부항, 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침과 한약으로 모유 분비를 촉진하고, 미용침 시술로 체형과 탄살도 관리한다. 복부 미용침으로 자궁수축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복부비만 개선을 통해 빠른 산후회복과 아름다운 체형관리를 돕는다. 부항은 음압을 이용해 불필요한 지방 제거를 도우며 산후 발생하는 근육의 통증을 치료하며, 뜸은 산후 저하된 면역력과 체력을 증가시킨다.



한방산후조리로 건강회복과 몸매회복

한방산후관리의 1단계는 어혈제거(오로배출 및 자궁복구), 산후부종 제거, 기혈보강, 산후풍 예방이 핵심이다. 2단계는 산후골반교정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몸매라인을 개선한다. 3단계로는 신진대사 활성화, 산후우울증 개선, 탈모 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방치료에서는 한약, 침, 부항, 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다.

산모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유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므로 기와 혈을 보강하는 한약과 침요법을 쓴다. 생화탕, 보허탕, 귀비탕 등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을 보강한다. 분만초기 부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령산을 쓰면서 림프순환을 돕는 물리치료를 병행한다.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는 체질, 기저질환 유무, 통증부위의 양상 등을 종합해서 개인별 맞춤치료가 진행된다. 오적산, 황기계지오물탕 등의 탕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령산모가 많아져서 오랜 직장생활로 허리, 목, 손목 등 관절에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침과 약으로 관절건강도 회복시켜야 한다.

커리어우먼이 늘어나면서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몸매와 체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걱정이 앞서게 된다. 침치료로 골반림프순환을 돕고, 대소변 배출, 지방분해를 촉진해 체형을 바꿔준다.

산후우울증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침치료, 약물치료, 심리치료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위의 증상 이외에도 산후탈모, 기미, 탄살관리까지 산모의 건강회복과 몸매회복을 위한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 ✨

“산모 여러분, 출산 후 올바른 산후조리로 소중한 아기에게 건강한 ‘엄마’가 되고, 무엇보다도 활력 넘치고 멋진 ‘나’ 자신을 되찾으세요.”

PART 2
HAPPINESS

간호사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비가 오는 날은
세상이 따뜻하다

하늘에 매달린
다리를 건너 만나는 도시
스페인 론다

불교 기도문



간호사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나는 2004년 동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근무 중인, 올해로 20년 차인 간호사이다. 지금까지 간호사로서 나름대로 매 순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간호사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

경주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가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순간, 나는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몇 년 전에도 똑같은 후회를 했는데...”

몇 년 전, 어머니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러한 빈뇨 증상과 잔뇨감 등의 불편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했다. 어머니는 편찮으셔도 무조건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한다. 그래서 억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소변 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보여 경구용 항생제를 복용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IVP(신우정맥내 조영술) 검사를 했는데, 한쪽 신장에 사슴뿔 모양의 결석인 녹각석이 발견되었다.

신규 간호사 때부터 비뇨의학과 병동에 근무했던 나로서는 그 녹각석이 단 시간 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 년 간에 걸쳐 생긴 것을 알기에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내가 부끄러웠다. 아마도 어머니가

느끼신 LUTS(하부요로계 증상)은 수년 간 지속됐을 것이다. 그것을 간호사인 내가 몰랐다는 게, 그동안 한 번도 병원 검진을 못해 드린 것이 너무 죄송했다. 비뇨의학과 병동에서 일하면서 녹각석이 그 정도로 커질 동안 그리고 그렇게 불편해질 동안 환자와 보호자는 뭘 했나 한심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한심한 보호자였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수술(PNL: 경피적 신쇄석술)을 받으실 때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머니를 잘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또 아차했다.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도 외래를 통해 ESWL(체외충격파쇄석술)을 수 차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잘 다니시는지 체크를 못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해봤다.

“성희야, 내 평생에 이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다”라며 나를 보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었다.

URSL(요관경 하 쇄석술) 시행 후 어머니 간호를 하는데 병실에 히터를 틀어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다. 추운 겨울이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불을 꼭 하나씩 더 주면 안 되냐고 묻곤 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딱 잘라서 병원 규정상 이불은 하나씩밖에 못 준다고 말했다. 나는 보호자가 되어 이불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불은 안 되지만 대신 시트는 하나 드리겠

다고 하는 간호사가 너무 고마웠다. 편한 침대가 아닌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이 아닌 시트를 덮고 자는 딸이 못내 맘에 걸렸던 어머니는 본인이 덮으시던 이불을 안 춥다며 계속 나에게 덮어주려고 하시며 밤새 서로 이불을 양보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당시에 간호사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엄마, 수술 잘 하고 온나” 하고 어머니를 실은 스트레처 카트를 수술실 안으로 미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다. 수술 전에 의사가 설명했던 문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 30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보호자들이 왜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 시간을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수술이 끝나는 시간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었다.

다른 큰 수술에 비해 어쩌면 간단한 수술임에도 수술 전에 동의서 작성 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수술 끝난 직후 병실로 서영진 교수님이 직접 회진 오셔서 수술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안심이었다. 수술 후 언제 회진 오냐고 자주 물어보던 보호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수술 후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통증이다. 그래서 간호사인 나는 수술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최대한 통증 조절을 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에게 좀 더 친절

하게 공감하며 대해 주지는 못했다.

“많이 아프시죠?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게 최대한 진통제 주사 빨리 드릴게요”라며 후배 간호사가 친절하게 어머니를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보호자 입장이 되면서 그동안 나는 어떤 간호사였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나 또한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가는데 그때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지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신경외과 조근태 교수님 외래 진료를 보고 입원해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MRI 검사를 하고 진통제를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 입원은 1박 2일 정도 하고 퇴원했는데, 그때 난생 처음 환자가 직접 돼 봄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담당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는데, 혈관이 잘 안 보이는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다. 환자들에게 정맥주사 놓을 때는 그 한 번 찌르는 게 그렇게 아프지 몰랐다. 그리고 왜 환자들이 손등을 피해달라고 하는지 직접 환자가 돼 보니까 알 듯했다. 세수할 때 손등의 정맥주사가 그렇게 신경 쓰일 수 없었다. MRI 검사를 하는데 큰 통 안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왜 환자들이 불안하고 시끄럽다고 하는지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빨리 투약하게 되면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를 직접 겪어보니 알게 되었다. 정말 회음부가 따끔거렸다. 그러한 것을 예상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깜짝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 후 1~2시간 폭 잤는데



식은땀이 많이 났다. 너무 놀라서 인터넷으로 약품 설명서에 부작용을 찾아봤다. 항 우울제로 분류된 것만 봐도 꺼려지고,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것이 큰 부작용이 아닌지, 그리고 상용하게 되면 중독되지 않을까 등등 많은 걱정이 뒤따랐다. 예전에 어떤 외과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어떤 약제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려면 본인이 직접 먹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듯했다. 환자들이 이런저런 부작용을 말하면 저 환자는 왜 저렇게 까탈스러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환자가 되고 보니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병동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병실 순회를 하는데 간호사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 어떤 간호사는 다인실 내에 곤히 자고 있을 다른 환자들을 배려해 조용하게 해당 환자를 처치하기도 하고, 어떤 연차가 높은 간호사는 딱딱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간다.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 환자에게 불편한 것이 있는지 물어

보지 않고 본인이 체크해야 할 것만 확인하고는 환자의 대답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나가 버렸고, 어떤 신규 간호사는 본인이 물어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물어봤으나 환자가 불편해 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나갔다.

조용한 병실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질문하고 처치하고 답해주는 소리를 듣는데, 그중에 나는 어떤 간호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에 환자 경험 평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직접 환자가 돼 보고 또 환자의 보호자가 돼 보니까 그 경험 평가의 중요성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하지만 지금도 바쁠 때는 그 경험을 까맣게 잊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급급해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출근하며 다짐해 본다.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간호사'가 되자. 🌸

염 화 미 소
拈 華 微笑
성전스님

비가 오는 날은 세상이 따뜻하다

비가 온다. 굵은 빗줄기들이 푹푹 떨어진다. 마른 땅 어디인들 이 빗줄기가 반갑지 않겠는가. 땅이 온몸을 적시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온다. 하늘과 비가 오랜 갈등 끝에 비로소 화해하는 것만 같다. 갈라질대로 갈라진 땅의 가슴은 이제 이 빗줄기에 상처를 봉합하고 다시 작물의 뿌리를 감싸는 어머니로 돌아가리라.

글 성전스님

現 천안 천흥사 한주, 현재 불교방송(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은 건 다 네 옆에 있어> 등이 있다.

독일 작가 마르틴발저는 비 오는 날의 감성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 “초원과 두세 그루의 전나무들이 보였다. 비가 오고 있었다. ‘비는 물로 된 실을 갖고서 젖은 옷을 짜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창밖을 내다보면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된다.” 비가 오면 나도 시인이 되는 걸까. 비가 오면 나는 그윽해진다. 모든 것을 보다 깊이 보고 멀리 보게 된다. 세상 모든 것에 반응하며 부딪치는 내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비가 내리면 나의 감성은 내게 감응의 평화를 일깨워준다.

비가 오는 날 산길을 걷다 보면 풀잎이 더욱 선명하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내 모습과는 정반대이다. 비가 내리면 나는 온통 젖어서 그 빗을 잃는데 풀잎들은 더욱 반짝이며 깨어난다. 비 오는 날의 풀잎은 꽃보다도 예쁘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비가 오는 날 왜 풀잎은 비에 젖지 않는 것일까. 길을 걸으며 비에 젖지 않는 풀잎은 나의 화두가 된다. 곰곰이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젖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풀잎은 젖지 않는다는 답 하나를 얻는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답에다 공식을 대입한다. 그 공식이란 부처님과 수보리라는 제자의 대화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자에게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느냐고 물으신다. 그러자 깨달은 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한다. 부처님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과 나의 생각은 일치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진리의 세계에서 ‘나’라든가 ‘주장’은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풀잎은 이미 진리였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를 껴안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나무와 풀과 하늘이 내게 그것을 일러 주었다. 그

덕에 이제 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나는 깨달아 가고 있다. 나를 껴안고 사는 일은 타인과 부딪치는 일이고, 나를 버리고 사는 일은 타인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행복의 공식 하나를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감성 수행’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나를 스스로 ‘감성의 수행자’라고 부른다. 참선과 경전에서 보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 때문이다. 자연은 부처님의 원음이 살아있는 교실이 되어 언제나 내게 다가온다. 그 진리의 교실에서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가 씻기어 가는 모습을 보고 ‘나’ 없는 길의 자유를 느낀다. 감성은 이렇게 자연이라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어 나를 안내한다.

창밖을 내다보면 우린 모두 시인이 된다는 말이 가슴에 여운을 남긴다. 그 말은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말이기도 하다. 감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햇살 한 줌도 바람 한 자락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타인의 상처는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겠는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학교폭력이나 가정의 폭력이라는 문제들도 어찌면 감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을 가다가 바람 한 줄기에 걸음을 멈추어 본 적이 있는가. 비가 내리는 날 창을 열고 빗줄기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별을 보고 가만히 탄성을 발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마음의 수건을 꺼내어 그의 가슴을 덮어준 적 있는가.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린 왜 멋진 일들을 포기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살아가려 하는가.

비가 내리면 세상이 더욱 따뜻한 것은 빗소리가 감성을 깨우기 때문이다. 감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처음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디엔들 꽃이 피지 않겠는가. 🌸

여행을 그리다
Spain
Ronda

하늘에 매달린 다리를 건너 만나는 도시 스페인 론다

#1

스페인 말라가의 일출과 새벽에 취해 아직은 어두운 광장에서 서성이다가 론다에 예약해둔 호텔을 취소할 수 없어 시동을 걸었다. 나는 여행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은 곳을 만났을 때 경로와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숙소를 미리 예약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론다의 숙소는 위치도 가격도 모두 훌륭해서 원칙을 깨고 예약을 했는데 피카소 미술관만 살짝 보고 지나치려던 말라가의 광장에 이렇게 끌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론다의 숙소를 취소하고 말라가의 숙소를 당일 예약하기엔 출혈이 너무 컸다. 다시 올 이유를 남겨둔다는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왔다.

국도를 달리는 중에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점점 거세져 와이퍼를 최대한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차창과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살짝 공포감이 느껴졌다. 이럴 땐 음악을 크게 켜고 속도는 조금 늦추는게 정답이었다. 비가 내리는 론다로 가는 길은 신기하게도 오래전 다녀온 낯익은 곳처럼 느껴졌다. 구불거리는 산길은 미끄러워 속도를 더 늦출 수밖에 없었다.

도착한 론다는 맑고 파란 하늘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회색 돌로 만들어졌지만 흰 건물과 낡은 주황빛 건물의 조화로 따뜻하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누에보 다리를 건너 원형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잠시 차를 세웠다. 질고 푸른 하늘에 매달린 것 같은 누에보 다리와 그 아래 협곡은 신비롭고, 무섭고, 아름다웠다.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협곡은 아찔해서 나도 모르게 난간을 꼭 붙잡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글·그림 배종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차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2

예약한 호텔은 누에보 다리를 건너 투우장 건너편 골목 안에 있었다. 호텔의 옥상에 올라서면 투우장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투우장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우 경기가 열린다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은 단정해 보였다. 빈 투우장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방으로 내려왔다. 사실 난 투우 경기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리 황소를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모르겠다. 황소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싸운다면 그나마 용감한 인간이 보여주는 아슬아슬한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공정하지 않은 경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방은 좁은 편이었지만 테라스를 통해 론다의 골목길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페인 말도 그냥 즐겁게 느껴졌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즐거워지는 것, 자꾸 웃음이 비실비실 배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니까. 아래층 바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한 목소리를 침대에 누워 듣다가 골목 구경을 하러 방을 나섰다.



하늘 아래를 걷다 20in x 24in / 디지털 드로잉



나를 찾아 온 별 20in x 24in / 디지털 드로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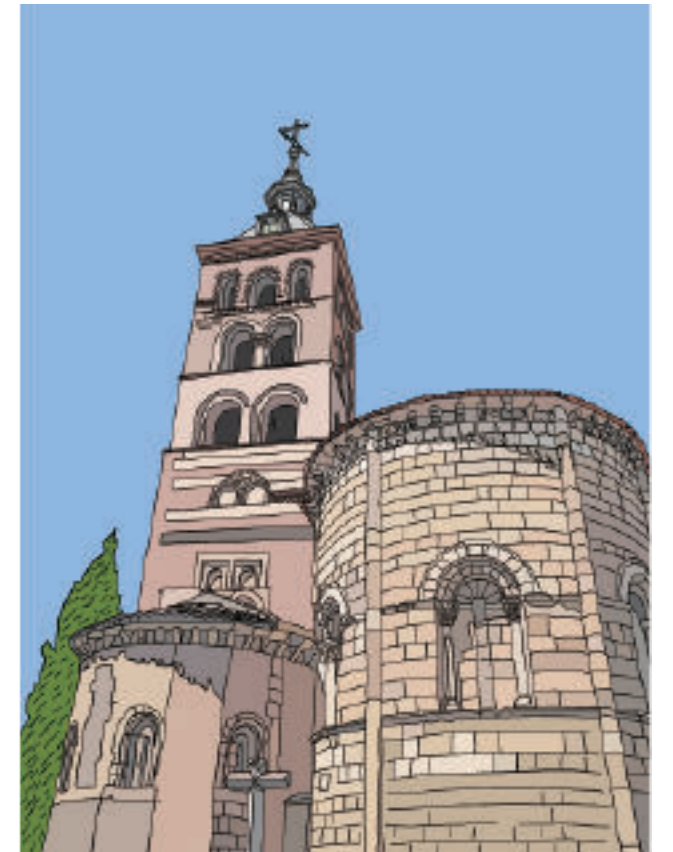
아찔할 정도로 좁고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둔 마을은 다리를 통해 이어져 있다. 협곡을 내려가면 반대편 마을로 가는 길이 있지만 인간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감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 다리를 놓았는데 현재의 다리는 원래 있던 다리가 무너지고 새로 지은 다리라는 뜻으로 '누에보-새로운' 다리이다. 하지만 이 누에보 다리가 지어진 것은 이미 200년이 넘었다. 1751년에 시작해 42년이나 걸린 공사는 협곡 아래에서 시작해 하나 하나 벽돌을 쌓아 올렸다. 힘든 공사를 마치고 완공되자 감격한 건축가는 다리의 한쪽 면에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새기려다 추락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찔한 추락의 유혹도 품은 다리의 시작을 알린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찾아 온 별 2 20in x 24in / 디지털 드로잉

#4

이곳 론다를 '사랑하는 연인과 머무르기에 가장 로맨틱한 도시'라고 말했던 헤밍웨이는 여름이면 론다에 와서 살았다. 절벽 가장 자리에 있는 가파른 길은 헤밍웨이가 산책했던 길이다. 어쩌면 론다는 헤밍웨이 덕분에 더 유명해진 도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론다의 어딜 가도 이곳은 헤밍웨이가 지냈던 집, 헤밍웨이가 자주 들른 카페, 헤밍웨이의 길이라는 표시는 없다. 론다는 헤밍웨이를 팔아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쩌면 론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



시간이 멈춘 골목길에서 20in x 24in / 디지털 드로잉

불교 기도문

살면서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 의식’을 행하지 않을 뿐, 어려운 일에 부닥치거나 삶의 중요한 시기에 놓이면 누구라도 자연스레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손을 모으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이뤄지고 어떤 기도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성취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정성,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갖춰져야 기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간절하고 정성껏 기도하되,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기도문》은 평소 기도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왜 매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 모음집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에 안성맞춤인 책이지요. 더욱이 일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한국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기도문》에는 남녀노소 현대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115가지 실용적인 기도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1장에는 생활 기도문, 2장에는 생애 특별한 순간을 위한 기도문, 3장은 연중 주요 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 4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불자로서 신행·수행할 때 유용한 정진 기도문과 법회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시인이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이사리인 동명 스님이 일상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편하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 호흡에 읽히는 게 이 책에 실린 기도문의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불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아닌 것, 모든 존재(생명)의 행복을 함께 기원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힘에 기대어 단박에

소원을 성취하려 하기보다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춤 없이 노력하리라는 다짐이 골자입니다. 부처님의 지지와 보살핌을 바란다는 점에서 타력(他力) 신앙의 요소가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불교 기도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런 불교 기도만의 특징이 이 책에 실린 기도문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다. 다만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염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힘을 잃게 된다.” 책의 서문에 나오는 동명 스님 말씀입니다. 기도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이루어지지요. 바라는 건 쉽지만 이루기는 어려운 기도를 성취하는 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펼쳐 보며 정성껏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불교 기도문
동명 지음

문명 기도

증생의 병고를 치유하기 위해
어진 의사의 몸 나투시는 대의왕 부처님!
온 누리에 자비광명 비추시고 무한한 가피를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름에 시달리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병은 번뇌망념이 천연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니
신심을 결집하여 안정하면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대의왕의 본원력으로 가피를 내려 주시어
속히 ○○○가 쾌차하게 하소서.

대의왕 부처님!
○○○를 어여삐 여기사 미혹으로 인한 병의
뿌리를 제하시고, 생각 생각 간절히 부처님이
떠오르는 가운데 밝은 의사의 신묘한 처방을 만나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 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름을 떨치고 일어나 기쁨이 넘쳐 흐르고
명량한 생활인으로 나아가 가족과 사회를
맑게 울리는 목탁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발원한 공덕으로 법계의 모든 증생이
부처님의 대자대비 광명 속에서 생명의 실상을
증득하게 하소서.

나무 약사여래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역의료의 중심, 함께하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주호 병원장이 4월 17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재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정주호 병원장은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지역거점병원, 믿고 찾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지역거점병원이 되어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영역을 마지막 까지 감당하는 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될 것이며, 전 교직원이 화합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가지 비전 실현을 위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숨가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금 변신 중

2018년도에 최신 3차원 뇌혈관촬영기를 추가 도입해 뇌졸중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뇌졸중치료 적정성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2022년 연말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여건을 갖췄다.

사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방병원 모두가 겪는 현실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 병원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에 경주병원은 유능한 진료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갖은 노력 끝에 진료공백을 상당히 해소했으며, 추후로도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의사를 초빙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인과 진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복강경수술전문센터의 수준높은 진료가 올해 5월말 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부인과에서 인정받는 의사 4인으로 구성된 의료진, 외래공간과 수술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내과에서는 추가로 2명의 신규 교수가 진료를 시작했으며, 최신 음압환기시설을 갖춘 호흡기센터 확충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상반기 중 공사가 시작된다. 호흡기



PART 3 DUMC

지역의료의 중심,
함께하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상월결사 인도순례
붓다의 길에서 함께 피운
43일간의 역사전 불사

DUMC NEWS

나눔

동심135와 함께



초음파내시경검사 활성화로 폐암 진단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호흡기 중환자 진료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중증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 추가 확충과 수술실 마련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곧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지원으로 마련된 50억 상당의 자금으로 올해 말까지 첨단 PET-CT의 도입으로 지역 내 암 진단과 치매 진단 등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자체 자금으로 약 70억의 비용을 들여 최신 선형가속기(방사선치료기)를 교체 도입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정밀 암 치료 영역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민이 믿고 찾는 든든한 병원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우수 의료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교적 의료공백이었던 경상북도 남부와 동해안권의 의료를 감당할 책임을 갖고 1988년 포항병원 개원과 1991년 경주병원 개원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불교계의 염원으로 탄생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그 동안 지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특히, 감염병 위기 대응, 영유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응급의료 관련 협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메르스 때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했고, 코로나19 때는 감염병입원 치료병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앞장서 왔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주시와 협력하여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해 경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포항, 울산, 영천 등에서도 어린이환자가 내원해 연간 약 3,000명 이상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관해서는 경상북도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BLS, KALS 등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전에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으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지정받아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주소방서 지도 의사와 월성원자력 구급차 의료지도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맡고 있다.

이상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에 있어 기본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 덕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을 제치고 2023 뉴스위크 평가 병원 순위에서 경상북도 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상월결사 인도순례 붓다의 길에서 함께 피운 43일간의 약사전 불사



상월결사 순례길, 그때마다 함께했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 43일간의 대장정으로 출발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생명존중, 부처님의 길을 걷다'가 무사히 도보순례를 마치고 3월 23일 조계사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상월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교 중흥을 위해 자승스님이 회주로서 선봉에 서서 2020년 시작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동화사 약사여래대불의 치유 원력으로 국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발원하며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출발하여 서울 봉은사까지 511km를 도보로 순례하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승보종찰 송광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를 잇는 423km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했다. 2022년에는 전국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는 '평화순례', '평화방생순례'로 이어졌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순례자들의 텐트 주변을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혹여 아파서 끄꿍대는 사람이 없는지, 낮에 치료받은 사람이 탈 없이 잠자리에 들었는지, 다음날 걸을수 있을지, 순례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팀 김명숙 팀장이다. 김 팀장은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장으로, 의료팀장으로, 간호사로서 의료팀을 총괄하며 입재부터 회향까지 순례단의 무사귀환까지 함께 했다.



길 위에 펼쳐진 약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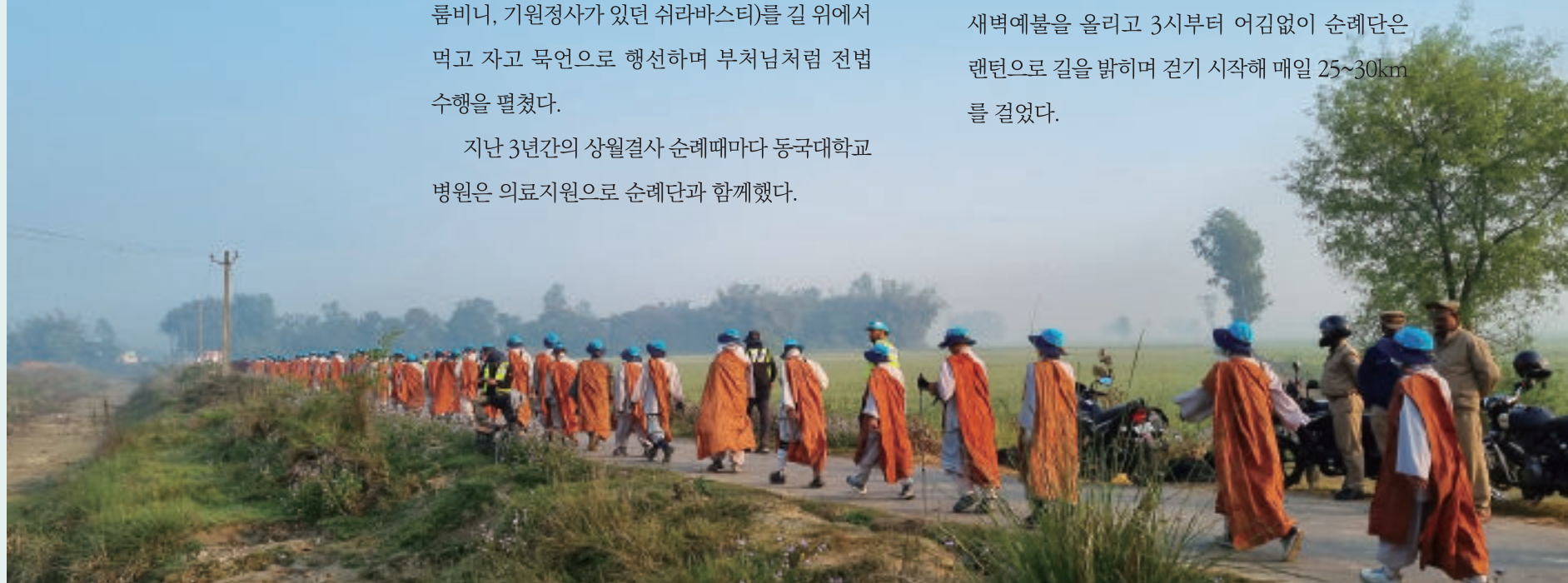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사부대중 108명으로 구성된 인도 순례단은 부처님처럼 길에서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며, 인도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인도 수교 50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외교부와 주 인도한국 대사관의 협조, 인도 주정부의 관심과 협조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부처님 성지를 찾아가는 길은 마을길, 산길, 들길, 고속화도로 다양하고 험난했다.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먹고 걸으며 텐트에서 자고 모든 존재가 존중 받고 존엄한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걸었다. 새벽 2시에 도량석으로 아침을 열고 2시 30분이면 새벽예불을 올리고 3시부터 어김없이 순례단은 랜턴으로 길을 밝히며 걷기 시작해 매일 25~30km를 걸었다.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는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진행했다.

43일 동안 1,167km를 걷는 대장정으로, 부처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7대 성지(초전 법륜지 사르나트,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정법을 전한 라즈기르, 비구니 교단이 탄생하고 2차 결집이 이루어졌던 바이살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룸비니, 기원정사가 있던 쉬라바스티)를 길 위에서 먹고 자고 묵언으로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 수행을 펼쳤다.

지난 3년간의 상월결사 순례때마다 동국대학교 병원은 의료지원으로 순례단과 함께했다.



행선 중간 중간 순례단의 건강을 살피고 숙영지에 도착하면 또 의료팀은 더욱 바빠진다. 도착하자마자 ‘약사전’(의료부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복통, 설사등 장염으로 인한 탈진, 발 물집, 감기, 습진등의 피부염, 발목염좌, 무릎, 허리 등의 근골격계 통증 등 다양한 환자가 속출했다. 탈진한 순례자에게는 수액주사로 빨리 치치해야 하는 상황에 수액을 걸어줄 곳이 마땅치 않아 때로는 나무에 매달고 때로는 창틀에 때로는 텐트에 걸고 주사를 놓는 등 마치 야전병원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탈진한 순례자가 많은 날에는 나무 하나에 수액 줄이 주렁주렁 연결된 채 주변에 순례자들이 누워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료팀의 노하우다. 한번은 별뿔개 물려와 동시에 15명이 벌레 쏘여 온몸이 퉁퉁 붓고, 가려움 등의 알러지로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팀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의료부스에 원숭이들의 습격으로 의약품을 훔쳐가거나 텐트에 치료를 하러 의료부스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똥을 싸놓기도 하고 난장을 쳐놓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장시간 걸어야 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작은 물집, 상처 하나까지도 2차적인 감염이나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순례자들의 발이나 전반적인 상태는 더 특별하게 점검하고 치료하고 살폈다.

김명숙 팀장은 “작은 상처도 꼼꼼하게 관리하고 드레싱을 했어요. 환자가 많을 때는 잠을 1시간도 채 못 잘 때도 있었지만 의료팀장으로서 순례단의 안전하고 원만한 회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43일을 잘 버텼어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순례과정이었지만 회향하고 병원에 복귀해서도 환희심으로 피로감도 잊었어요. 이 또한 함께할 수 있어 불자로서 거룩한 길에 함께한 인연공덕을 지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큼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스님들도 탈진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고, 동행 취재하던 건강한 기자도 동분서주 뛰더니 탈진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던 것이다.

김 팀장은 순례의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함께 했으며 모든 텐트에 불이 꺼져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한다. 물과 음식, 큰 일교차 등의 현지 환경과 장시간의 도보순례로 인한 피로감 누적, 야외 텐트 생활, 숙영지 등의 여건상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순례단의 운영지원단 의료팀장으로 인도순례의 답사부터 모든 준비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김팀장은 지난 3년간 상월결사의 순례여정 속에서 순례단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졌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응중 교수, 외과 곽범석 교수,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등 의사 3명을 교대로 10여일씩 의료팀으로 파견하여 순례단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든든하게 함께했다. 또한 3월 8일과 9일에는 부처님 열반지쿠시나가르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불자회 연우회가



좌로부터 김명숙 의료팀장(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광기 교수(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곽범석 교수

“
 힘들고 만만치 않은 순례과정이었지만
 이 또한 함께 할 수 있어 불자로서
 거룩한 길에 함께 한 인연공덕을
 지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
 ”

순례단과 지역사회에 의약품 지원과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2월 21일과 22일 부다가야에서 의료봉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에서는 약품 공양 등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이 상월결사 정신을 인도 현지에서 실천하며 자비 의료로써 부처님 길을 함께 걸었다. 🌸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 성료 및 인증의료기관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받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로 인증을 획득하여 5월 8일 현판식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기본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 총 512개 조사항목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우리 병원의 무한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자안전과 병원의 질 관리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공로 감사패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4월 7일 열린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대응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병원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받은 권범선 병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동안 병원에서 고생해 준 의료진, 직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3월 8일 교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일 7대 한방병원장은 취임사에서 "12년도 한방병원장 취임 때 가진 초발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질향 중심으로 질과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한방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공간 조정 결단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보직자는 결과로 말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으로 건강한 거버넌스 만들자' 신입사무국장과 지원부서장 간담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5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입 사무국장에 임명된 고기환 사무국장과 지원부서장들을 만나 조직개편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병원 운영 방침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성원들과 부서 간의 효율적 소통으로 공감하는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겠다"며 신입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지원부서장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환 사무국장은 '화이부동'과 '패치워크'의 예를 들며 "자기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쫓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패치워크를 이루듯이 각각의 개성과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패치워크처럼 원활한 소통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자"고 했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김상훈 교수, 논문 최다 피인용 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김상훈 교수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 및 제6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최다 피인용 상을 수상했다.

임윤정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AI application in Capsule endoscopy'에 관한 강연을 하여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AOCC) 대회는 장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성과 공유와 협업을 위하여 아시아 지역을 순환하여 개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 앱 오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환자용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했다. 환자용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진료예약, 검사결과 확인, 모바일 제증명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운동·식사·수면 등의 개인건강데이터(PHR)를 기록하면 이를 병원정보시스템(HIS)와 연계하여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외래 환자가 수납 대기줄 없이 빠르게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처방전은 환자용 앱을 통해 인근 외부 약국으로 직접 전송 가능한 전자처방전달 서비스도 가능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용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검색 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 참여 및 의료팀 환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월 23일에 43일간, 1,167km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 채석래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권범선 병원장, 등 교직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회향식날 조계사에는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운집하여 순례단을 축하하고 환영했다.

순례기간 전 일정을 순례단의 건강수호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귀국한 의료팀을 총괄한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을 비롯해 교대로 현지로 합류한 김응중 교수, 김광기 교수, 객범석 교수, 성낙진 교수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환영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회향식장에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부스를 운영했다.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의료지원·기금모연·홍보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하여 의료지원 및 기금모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는 채석래 의료원장과 지도법사 능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을 비롯하여 윤재웅 총장, 전국비구니회 본각스님과 많은 불자들, 기부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금모연에 동참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병원장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4월 17일 '지역의료의 중심, 함께하는 동국대병원'을 주제로 제 22대 정주호 병원장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등 많은 내외 인사들이 함께했다.

돈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신입 병원장은 구성원 중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낌없는 사랑으로 부단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주호 병원장은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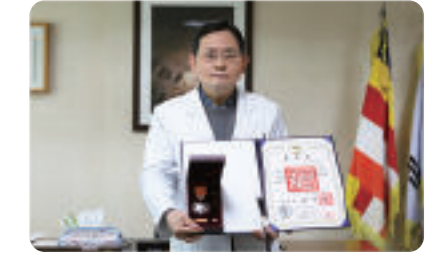
거점병원으로서 책임수행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진료환경 확충, 우수한 의료진 초빙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중증외상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피부과 서무규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훈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서무규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1년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재직하면서 봉사과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그동안 진균성 피부 치료에 대한 끊임없는 의학 연구 및 후학 양성과 환자의 치료에 힘쓴 서무규 교수는 대한의진학회 회장, 대한피부과학회 감사 및 이사, 대한피부과학회 대구경북지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치매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지표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 영상 검사 ▲필수 혈액검사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이다. 정주호 병원장은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병원 지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대한당뇨병학회로부터 당뇨병 교육자 교육경력 인정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병원은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한 3개 이상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된 당뇨 교육팀이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당뇨병학회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내분비내과 이영실 교수와 하원철 교수를 중심으로 당뇨 교육 전문 간호사 및 영양사 등 당뇨병 교육자 인증을 받았다.

당뇨 교육실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혈당 감시, 적절한하고 안전한 약물 복용 및 투여, 효율적 자가 관리와 합병증 예방활동, 올바른 식사조절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한다.



2023년 교직원 건강증진 워크온(걷기)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4월 20일 교직원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워크온(걷기) 프로그램'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신청 대상은 뇌·심혈관 질환 발병 고위험군 이상 교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주시 보건소 건강

걷기 클리닉과 연계하여 매월 걷기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으로 년간 누적 걸음 우수자와 동아리 우수자를 선발하여 2023년 12월 말 경주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과 교직원 차담회 열어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4월 3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과 교직원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는 간호사 대표, 기술직 대표, 기능직 대표, 지원직 대표 등 각 직종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병원 생활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격려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근우 병원장은 차담회에서 “병원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분들”이라고 참석자 한 명 한 명 소개했고, 이사장 스님은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컵 등 만들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부서별 희망자들이 모여 원내 봉축용 '컵 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컵 등 만들기'는 지도법사 보경스님의 지도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컵 등은 병원장과 지도법사 스님이 환우에게 직접 나눠주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봉축 등을 만드는 동안 올해 봉축법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단과대학 출범식 '해오름제' 개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는 4월 6일 이관 학장 및 주요 보직자, 학생회, 재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단과대학 출범식 '해오름제'를 개최했다.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주시의사회 이길호 회장, 의과대학 동창회 탁우택 회장,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 경상북도청 복지건강국 김진현 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보시공덕

(재)법보선원에서는 4월 20일 로봇수술센터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불교계 의료선진화를 위한 로봇수술 시스템 구축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 약정하고 지금까지 총 27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으로 마련한 송담 로봇수술센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스님과 불자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에게 최첨단 수술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후유증 부담을 줄이는 치료를 하고 있다.

가평 성주사 주지 성수스님이 열반하신 영산당 일공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의료불사에 사용해 달라며 4월 5일 정재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성주사 성수스님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먼저 기부하는 무상보시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고, 기부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신 장비구입, 병원증축 등 불교병원 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써 달라”고 말했다.

용인 화운사 주지 선형스님이 3월 1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증축기금으로 2천 만 원을 기부했다. 선형스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의술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화운사 사부대중의 정성과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천사 혜능스님이 3월 2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기부자라운지에서 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부했다. 혜능스님은 서울 은평구의 소박하고 작은 절 송천사에서 수행하시며 한 톨 한 톨 모아온 정재를 회향하며 진료 및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기금 용도로 써달라며 지정 기부했다.

현응스님은 4무(無)를 실천하는 스님으로 유명하다. 스님은 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폰',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 없이 생활하며 모든 정재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는 병원 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학교와 병원에 누적 기부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한다.

수덕사 산내암자 극락암에서 정진하다 입적하신 **故 진우스님**이 4월 26일 1천만 원 기부했다. 스님의 회향 뜻을 받들어 손상좌스님이 5월 2일 49재를 앞두고 전달해 기부 의미를 더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경주시의사회에서 2백만 원, 경상북도의사회에서 3백만 원의 장학금 전달과 동창회장의 격려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관 학장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이끌 수 있는 참 의료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참석해주신 내빈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유연 학생, 유전학 저널 단독 제1저자로 논문 게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우유연 학생이 2023년 4월 유전학 저널 「Frontiers in Genetics jouenal」에 발표한 '침술이 관절염 동물 모델의 통증과 부종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의 논문이 유전학 SCI 저널에 단독 제1저자로 게재되었다.

우유연 학생은 2023년 1월 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단독 제1저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 단독 교신저자로 2022년 연구 장학프로그램으로 경향학교실에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여 '염증에서 침 치료의 국소부위 미세환경 및 전신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제로 신경학 SCI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도 두 번째이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나눔의 첫걸음,
동심 1·3·5와
함께 해주세요!

동심 1·3·5와 함께

동심 1·3·5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同心 1 매월 1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합니다!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東心 3 매월 3만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자님의 나눔은 빛나는 동녘의 태양처럼 밝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動心 5 매월 5만원으로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기부자님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기부 외에도 일시납으로 기부액에 상관없이 동심 1·3·5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송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후원 기관	후원 문의	후원 계좌	예금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011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34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01-00-059986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tel 054. 770. 8130	우리은행 1005-202-076965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tel 031. 710. 3712	국민은행 368137-01-001162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보내는 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질
취
선

이곳에 풀칠하세요.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약사여래 십이대원의 숭고한 뜻을 실천하며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로병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더 큰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